

己未大同譜 序

太白山脈이 滔滔히 흐르는 山紫水麗한 江原道 寧越!

이곳은 우리 嚴門의 發祥地요 搖籃인 것입니다。距今 千餘年前 우리의 始祖이신

柵城君께서는 中國의 名門後裔로서 天下의 第一江山인 이 땅에 오셔서 嚴門을 創始

한 偉大한 어른이십니다。

나라에서는 곧 寧越의 一境을 食邑으로 내리시고, 柵城(統一新羅時代 高麗初의 寧越

郡名)君에 封하셨다 합니다。

始祖公의 崇高한 理念과 遺志를 이어받은 우리 先祖들은 一七四八年 첫大同譜인 戊

辰譜를 嚆矢로하여 發刊된 爾來 이번 己未譜까지 五回의 大同譜를 增補刊行하게 되었음

니다。오늘날과 같이 通信, 交通이 發達된 時代에도 難關이 山積한데 하물며 交通이

不便한 그 옛날 山 넘고 물 건너 깊은 감밭로 이宅 宅을 다니면서 修單하시던 일

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것이 여미어 집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嚴門의 傳統과 祖上이 끼친 功勳과 業績을 文獻으로 엮어 後

孫에게 傳承키 爲한 一念이었으므로, 우리는 犧牲을 아끼지 않았던 先人에게 오직 感

激과 고마움을 느낄 뿐입니다。

옛글에 事物에는 始終과 本末이 있다고 하였읍니다。이는 始作과 終, 根本과 結果

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잘 研究하고 處理하는 데서 사람과 社會가 發展해나가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힘을 기울여 巨創한 修譜事業을 敢行하는 目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宗族間의 親睦을 두터이 하고 後孫들의 繁榮과 人材를 育成하는 데에도 그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先祖들은 忠·孝·義·烈을 根本 바탕으로 하여 修身齊家 保子孫을 第一義로 삼고, 不義의 立身揚名과 虛張盛勢보다는 차라리 困辱과 苦難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正義와 信誼로써 經世하여 왔음은 族史가 証하는 바이며, 이것이 또한 他門과 다른 姓字 그대로 嚴한 敎訓이었음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로 우리 嚴門을 빛낸 忠毅公께서 「爲善被禍 吾所甘心」 卽 좋은 일을 하고 禍를 입더라도 나는 달게 생각하는 바요 라고 하였으니 殺身成仁의 精神! 이에 이르면 그 極致라 하겠으며, 大義를 爲한 곧은 節介 또한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祖上들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矜持와 自負를 훌륭히 繼承하여 或時나 辱되게 해서는 아니 되겠으며, 더욱이 한낱 門閥에 對한 自慢이나 偏狹한 派閥意識에 젖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祖上들의 빛나는 열을 永遠히 되살려 後孫들이 더욱 大同團結하여 國家와 民族에 貢獻함은 勿論 길거리에서나 車間에서나 어디를 莫論하고 한 할아버지의 后裔로서 따스한 人情이 오가고 기쁨과 눈물을 같이 하는 和睦한 宗親이 되어야 하

것입니다.

오늘날 物質文明의 時代潮流는 우리 몸의 骨格과도 같은 社會正義의 根幹인 倫理 道德과 民族固有의 美風良俗이 漸次 退色해 가고 있습니다. 이 時代에 사는 우리는 孝에 立脚한 生活規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一, 나는 父母(祖上)를 爲해 무엇을 犧牲해야 하나

二, 나는 남편(아내)을 爲해 무엇을 奉仕해야 하나

三, 나는 子孫을 爲해 무엇을 물려 주어야 하나

이 세가지 길이 나와 祖上과 子孫을 爲하는 길이라 하여 三爲之道라고 이름을 붙

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三爲之道를 行함으로써 祖上崇拜의 思想을 드높여 「그 祖上에 그 後裔」란 名

譽로운 稱頌을 먼 훗날까지 길이남겨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人間行實의 根源

이 되는 孝와 誠을 다하여 生命의 뿌리를 찾고 힘차게 그 根幹을 培養하고, 을바

르게 그 枝葉을 가꾸어 보람 있게 열매를 거뭇야 것입니다.

今般 大同譜를 編纂하는 데 있어 京郷 各地에서 老軀를 이끌고 或은 譜事를 固

陋한 因習으로 여기지 않는 젊은 宗親들이 物心兩面으로 積極 呼應해 주셔서 有終

의 美를 거두게 되었으니 이는 我門의 慶幸한 일이며, 또한 爲先修誠하는 데 한 龜

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온 宗親과 더불어 哀惜해 마지않는 것은 國土의 兩斷으

로 以北의 同宗들이 大譜에 빠지게 되니 身體의 한 部分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本意아니게 一部 漏譜된 宗親에게도 안타까운 마음 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特히 忠毅公系の 宗親들이 小我를 버리고 大義를 爲해 互讓의 美德을 發揮하여 오랜 동안의 難題를 圓滿히 解決한 데 對하여 全宗親과 더불어 慶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任員團을 비롯하여 그동안 譜事業務에 關與하신 宗親諸位의 不徹晝夜 心血어린 勞苦에 뜨거운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大譜印刷에 誠意를 다해 주신 回想社에 感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大同譜 發刊이 慕先之心과 愛宗之誼를 더욱 發揚하여 嚴門中興의 새로운 契機가 되기를 바라면서 高名한 宗親이 많이 계심에도 末裔인 제가 敢히 序하는 바입니다.

一九七九年 己未 七月 日

始祖公二十四世孫 中央宗親會長 秉吉 謹書

寧越嚴氏大同譜卷之一

始祖

軍器公派

嚴朝戶部員外郎

嚴之先以唐天寶年間始入東國時嚴氏為上价辛氏為副价仍居寧越而不返此必指戶部公以上之世也若或以此說稱於戶部公矣則世代不符故今不敢依於癸酉之註錄

嚴林義

子太仁 태인
檢校軍器監尹

二世

子丁寬 정관
光陽監務

三世

子援 원
號麗澤齋
成均大司成

四世

子公裕 공유
中正大夫司農卿
夫人仁同張氏父敞郡夫人奉化鄭氏

五世

子桂 계
忠勇別將
父監務禧

六世

子承祐 見下

七世

僕射公派

子德仁 덕인

子存益 존익

子敦叙 둔서

子光 광
銀紫光祿大夫尚書左僕射

子守卿 수경
門下侍郎平章事

子允精 見五卷

文科公派

子處仁 처인
文科
墓永興鎮坪杜樓
毛老里曜德洞甲坐

子克寬 극관
進士
墓大興里艮坐
夫人清風金氏墓附

子介實 개실
通訓大夫軍資監主簿墓同上
淑夫人漢陽趙氏墓附

子致 치
博川訓導墓同上
夫人慶州金氏墓附

子敬 경
墓德興杜飛來洞艮坐
夫人坡平尹氏墓附

子孝祖 見七卷

蓬萊山下主脈癸坐原而建神道碑具石物以每歲陰九月晦日定享歲事焉

子文 문
字星國
墓安邊新茅面藥水洞艮坐
夫人淮陽朴氏

子世敬 세경
墓永興德興面豐田里飛來峰西坐
夫人全州金氏

子孝宗 見七卷

子文 문
字星國
墓安邊新茅面藥水洞艮坐
夫人淮陽朴氏

子世敬 세경
墓永興德興面豐田里飛來峰西坐
夫人全州金氏

子孝宗 見七卷